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부흥    제목:죽어야 산다    성경:요한복음 12장 24-25절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12:24-25)

죽어야 산다는 말은 역설적인 가르침에 속한다.

죽음과 삶은 서로 반대말인데, 마치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앞뒤관계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통은 살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순서로 여긴다. 사는 것이 앞이고, 죽는 것이 그 뒤다.

역지로 해석하려면 연어를 예를 들 수 있다. 연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어미 세대가 죽는다. 갓 태어난 연어들은 항상 엄마가 죽고 없어진 다음에 태어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탕감 하셨으며, 그 댓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 성령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많은 열매는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야 산

다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

-밀에 물이 들어가고 물 때문에 팽창하여 공기 구멍이 생기고 발아가 촉진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양분이다. 씨앗은 자기 속에 양분을 지니고 있어서 발아에 필요한 양분으로 삼는다.

-이 양분이 모두 소모되어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이 양분을 아까워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씨앗은 자기 속에 양분을 희생하고 내어 줌으로써 비로소 새 생명을 탄생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죽어야만 산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씨앗의 입장에서는 가만 있으면 생명을 품은 채 몇백년이고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지금 발아를 시작했는데 만약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으니 그가 만약 결단해야 한다면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물에는 마중물이 있고, 사업에는 종잣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 생명을 위해서는 씨앗이 죽어야 한다.

-지금 나에게 남겨진 유산을 내어 주어야 한다.

-보석이 들어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의 사명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맺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죽지 아니하면 종교로 남게 될 것이고(카톨릭처럼) 죽으면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부흥의 싹을 틔워야 한다.

## 1.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신앙의 유산을 교회 갱신에 쏟아 부어야 한다.

-기독교는 다시 종교로 돌아가서는 의미가 없다. 종교를 부정하고 성령운동으로서의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다.

-개신교라는 말의 의미가 항상 새로운 탄생을 그 안에 품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갱신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셈이다.

-즉, 태생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려 한다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종교로 돌아가려면 차라리 카톨릭이 낫다. 더 편하고 예스럽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원한다면, 성령충만을 원한다면, 새생명을 원한다면, 다이나믹한 인생을 원한다면 교회를 갱신해야 한다.

## 2.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한 알의 밀이 자기의 자양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기의 자양분, 즉 자기의 배, 자기의 이익, 자기의 출세,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의 정신이다.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성령 스타일을 따라야 한다.

-성령의 사람은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나보다 남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한다.

-21세기는 조연의 시대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연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21세기는 다니엘의 시대이다. 왕보다 국무총리가 더 중요한 시대이다.

-과거 70-80시대 이전 세대는 희생의 세대였다. 그들의 희생 없이는 한국의 도약은 없었다. 오늘은 누리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역사를 둘러볼 때 누리려는 사람들은 불행했다.

-오히려 희생하려는 사람들은 행복해 하고 보람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 동남아, 중국, 인도,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동남아, 중국, 인도, 이슬람, 유대인들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3.

<찬양예배>

주제: 부흥      제목: 부흥을 먼저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16절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3:8-16)

1. 더 구체적인 성경의 회복

- 오종직의 회복

- 특히 정확하고 해박하고 현시대적이고 지혜로 가득한 해석이 중요하다.

- 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

- 모든 성경은 고리타분하거나,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

- 구체적인 성경의 회복을 통해서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 2. 교리와 윤리와 스타일의 구별

-오직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 1번이 정확해야 2번이 가능해진다.

-교리의 목적은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것 (교리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불가능하지 않지만, 용도가 다르다. 틀린 교리는 없다. 다만 시대에 맞지 않을 뿐이다. 왜냐면 당시의 이단 분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리의 목적은 의와 죄를 분별하는 것(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그가 경찰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도가니는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다. 당시에는 인화학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행태가 자행되었으며, 요즘의 성폭력이 오히려 더 악하다. 왜 인터넷에 성인자료가 범람한 것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 몇십년 전에 일어난 일에 관심하는가? 지금 현재 악한 성적 표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관심하지 않으면서.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스타일의 목적은 복과 불행을 분별하는 것

-그 어느것도 비판이나 정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며, 선망이 되어야 하며, 모범이 되어야 하며, 존경이 되어야 한다.

## 3. 문화적 우위와 문화적 봉사

## 4. 생존본능으로서의 연합